

## 【 서울기록문화관 운영현황 】

### □ 운영개요

- 최초개관 : 2012. 10. 26.
- 운영일시 : 매주 화~일, 09~18시(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운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운영인력 : 5명(기록관리팀 직원 1명, 자원봉사자 4명) / 1일
  - 기록관리팀 전원(7명)이 주말 당번 근무 수행
- 운영내용 : 주요시정 시청각 기록 전시 및 역사적 재현공간 운영

### □ 전시구성

구분	서울기록문화관		옛 시장실
	본전시	기획전시	
개편일자	2022. 11. 15.	2021. 12. 29.	2018. 11. 6.
연출방식	연중 다양한 기록전시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방식	관람객이 보고 싶은 주제를 직접 선택·관람하는 방식	근현대 실제 사용했던 역사적 공간 재현
전시내용	아카이빙된 기록들을 통해 주요시정 및 변천사 전시	서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분야별 기록 전시	옛 서울시장 집무실 및 부속공간, 행정박물 전시
현장사진			
전시규모	220.5㎡	70㎡	255㎡

# 서울기록문화관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의 : 02)2133-5695



## 서울기록문화관은

기록을 매개로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서울과 함께 한 시민 여러분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70여년간 축적된 다양한 기록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 전시개요

- 공식명칭 : 서울기록문화관
- 최초개관 : 2012년 10월 26일 (1차개편: 2015년, 2차개편: 2019년, 3차개편: 2022년)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일요일 09:00~18 (휴관: 월요일 및 국가공휴일)
- 운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270.5㎡)
- 운영내용 : 서울의 변천사를 다채로운 기록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플랫폼 전시 서비스
-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02-2133-5695)

## 전시소개

서울시민의 대표 문화공간인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한 “서울기록문화관”은, 서울의 변천사와, 서울과 함께 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기록문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시공간입니다. 2022년 11월 새롭게 단장을 마친 서울기록문화관은,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전시 서비스 중이며, 다양한 기록을 통해, 70여년간의 변천을 거쳐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잡은 서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민일상 속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서울의 한강, 교통, 주요 명소, 서울의 노래와 문화 등을 기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살아온 시민 여러분의 기억까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전시구성

구분	전시내용		전시현황
본전시	<b>본 전시에서는 시민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준 주요 서울시 정책들과 서울시만의 특별하고 다채로운 모습들을 기록으로 아카이빙하여 전시합니다.</b>		
	서울시민을 기록하다.	자신의 휴대폰 속 서울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터치모니터에 표출된 QR코드를 통해 전송하면 대형 전시화면에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정을 기록하다.	연대별(1950년대~2020년대)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의 사진, 영상, 문서를 탐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를 기록하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스펙타클한 대형사진으로 대비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문서들을 함께 탐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키워드로 기록하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구성하고 채워나가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키워드로 묶어 관련 시청각 기록들을 간편하게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시간을 기록하다.	벽면에 띄워진 서울의 현재 모습을 터치하면 그 부분의 과거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시간여행을 떠나보세요!		
기획전시	<b>기획전시에서는 서울시의 분야별 주제를 기록으로 아카이빙하여 전시합니다.</b>		
	인트로	기획전시실의 콘셉트, 관람방법, 구현된 전시주제를 소개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기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관	전시 주제를 여러분이 선택해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키오스크에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보관 내 모든 디스플레이가 관련 콘텐츠로 자동 변경됩니다.	
영상관	영상관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빛을 차단한 단독 공간에 조성되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몰입도 있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옛 시장실 재현공간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의 : 02)2133-5695



## 서울특별시의 옛 시장실은

해방 이후부터 2008년 5월까지 60여 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이 사용했던 집무공간입니다. 옛시장실은 서울도서관 3층 정중앙에 위치하며 집무실과 접견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시장실에서는 그 당시의 사무집기와 가구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 전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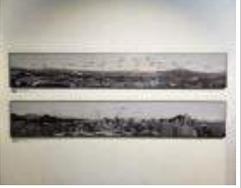
- 공식명칭 : 옛 시장실
- 최초개관 : 2012년 10월 26일 (1차개편: 2013년, 2차개편: 2018년)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일요일 09:00~18 (휴관: 월요일 및 국가공휴일)
- 운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255㎡)
- 운영내용 : 옛 시장 집무실 및 부속공간 재현, 주요 시정기록물 및 행정박물 전시
-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02-2133-5695)

## 전시소개

서울의 역사와 기록이 머무는 “옛 시장실”은, 서울시 옛 청사의 시장실 및 접견실, 기획상황실 공간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이 공간은 해방 이후부터 2008년 5월까지 60여 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이 사용했던 집무공간입니다. 역대 서울시장들은 집무실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접견실에서는 서울시를 찾는 외부인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기획상황실은 서울시정의 심장부로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결정하던 곳입니다.

본래 옛 청사 3층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비서실 공간으로 옮겨 재현해 놓았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집무책상과 의자, 외부인사들에게 받았던 선물 등의 행정박물들도 보다 몰입감 있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시구성

구 분	전시내용	전시현황
3층로비	서울기록문화관 및 옛시장실 안내 과거~현재 서울의 공간지리 표상	 
기획상황실	문서로 본 서울특별시 60년 서울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시청현관 표어 서울, 시민의 역사(서울시민 이야기)	 
접견실	서울을 방문한 각계 인사 접견 모습 서울특별시 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 해외도시로부터 받은 선물	 
시장집무실	연표로 보는 서울시의 시정 역사 역대 서울시장 소개 서울시장의 집무공간 체험	 

# 증강현실 AR체험 서비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의 : 02)2133-5695  
 02)2133-2834



## 증강현실 AR체험 서비스는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협력사업으로 서울기록문화관의 전시콘텐츠에 XR메타버스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관람객은 전시관의 현장전시와 가상현실이 결합된 증강현실을 체험하고 관람객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전시구성

전시내용		전시현황
AR길안내 전시해설	관람객의 전시 관람을 돕는 서비스로 최적의 동선으로 관람객을 유도하고, 원하는 전시구역을 검색하면 스마트폰에 이동 경로 안내 전시 구역에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로 전시 공간 앞에 위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전시 내용과 관람 방법 설명	
증강현실 육조거리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재현한 가상 전시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가상의 육조거리를 직접 걸어보는 체험 가능	
시대를 뛰어넘는 창문	서울기록문화관의 창문을 통해 현재의 서울광장을 내려다 보면서 증강현실로 과거의 광장 모습을 함께 감상	
서울시장과 기념촬영	옛 시장실 재현공간에서 시장 집무실 책상 옆에서 가상의 오세훈 시장과 사진 촬영	
역대 시장 한눈에 보기	옛 시장실 내 설치된 현·역대 서울시장 정보 그래픽 전시영역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서울시장의 업적이나 관련 기사, 동영상 등이 증강현실로 표출	